

올해의 경조사를 맡겨 주시겠습니까?

올해의 경조사 비즈니스 제안서

귀사의 완벽한 경조사 파트너, 올해의 경조사

Tel
1668-1840

Email
mayflower@outlook.kr

Website
www.years-event.com

Managing Director
총괄이사 김도훈



TK 1위 꽃배달 **메이플라워**는 대한민국 1위 꽃배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는 메이플라워 사업체로 6년간 꽃배달 사업을 운영중이며, 현재 대구경북 통합 매출, 영업이익, 인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에서는 업장을 직접 운영 중이며 대한민국 각지에 5만개가 넘는 협력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대한민국 어디든 꽃배달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매출 13억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650-5

누적 주문 수

1백만 건 돌파

대한민국 어디든
빠르고 좋은 상품으로

부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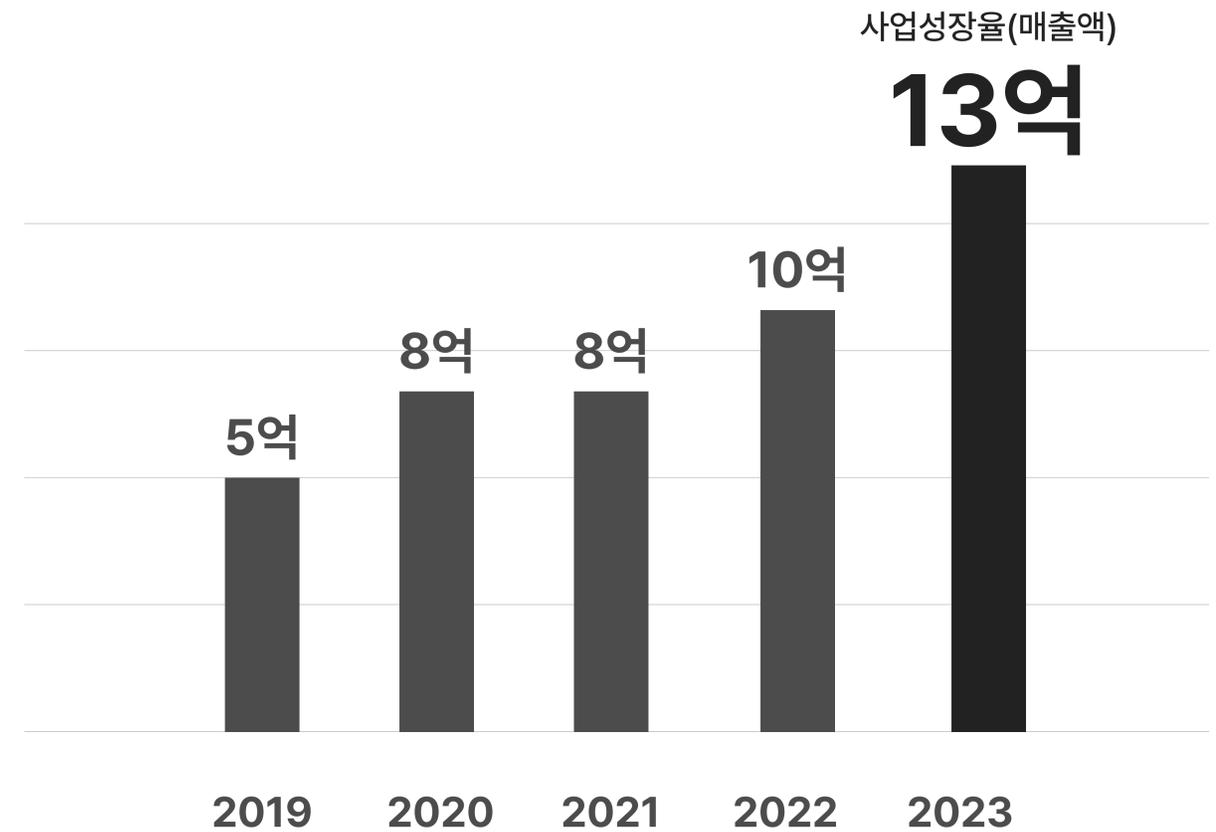
어플 신규런칭

당신이 받은 문자,
부고장

또한,

IT종목을 접목시켜서 부고장 어플리케이션, 자동 SMS 프로세스,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 기업 맞춤 경조사 서비스, 배달 프로모션등 자체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세상에서 발빠르게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품질이 좋은 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조사
신규런칭

Year-confier →

부고장 어플
신규런칭

thebugo →

주문 자동처리
프로세스

flowerde.pe →

자사
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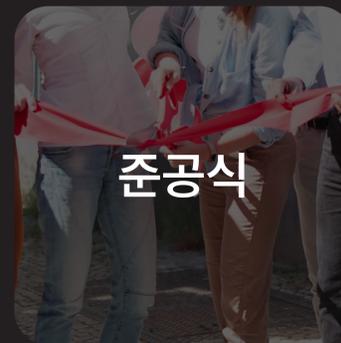
easyorderflower →

자사
인트라넷

weflower →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조상품,
거래처 관리와 관계형성을 위해
많은 상품 보내고 계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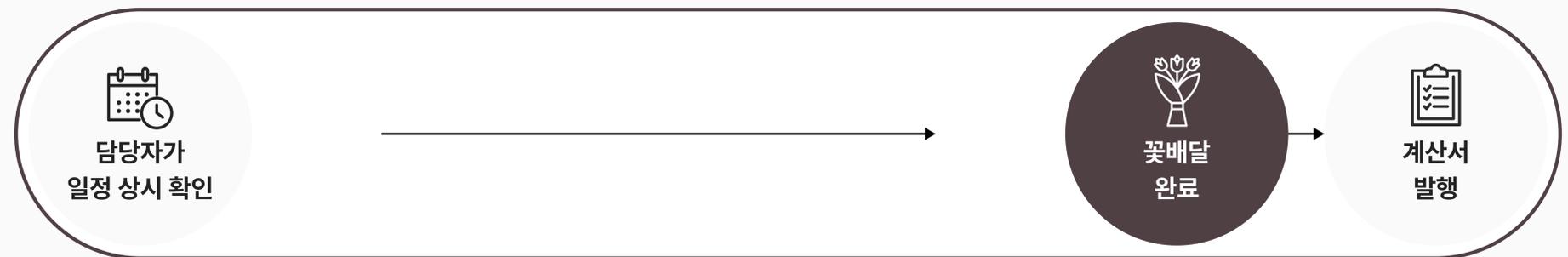
번거로웠던 경조사 관리를
경조사 담당자가 1:1로 관리해드립니다.

올해의 경조사 1:1 전담 파트너 서비스 출시



일반적인 꽃배달 프로세스

번거롭지만 필수적인 경조사 문화,
모든 프로세스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
귀사의 비즈니스 발전을 도모합니다.



올해의 경조사 서비스 이용 시



**대표님은 오롯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세요.
경조사 관리는 올해의 경조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왜 올해의 경조사 인가요?

꾸준하게 성장해온 결과, 다년간의 노하우와 더불어
사장님들께 합리적인 가격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꽃배달 업체 이용 시

- ✓ 별도의 계약이 없어 매번 먼저 연락해야함
- ✓ 담당자가 없어 수고스러움 발생
- ✓ 여러 중간마진 발생
- ✓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예산 낭비



올해의 경조사 서비스 이용 시

- ✓ 단 한번의 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관리
- ✓ 담당자 1:1 서비스로 간편한 이용 가능
- ✓ 5만 개의 협력사 보유, 중간마진 X
- ✓ 같은 상품을 보내더라도 예산 축소 가능



올해의 경조사라서 가능합니다.

누적 주문 100만건, 8년의 경력으로 당당하게 약속드립니다.
 현재 어떤 금액으로 이용중이시던 **더 만족스러운 금액,**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협업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을 편리하게!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카카오펀, 네이트온, 문자메시지 등
 원하시는 협업 메신저로 편하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장부부터 계산서 확인까지, 한번에!

장부와 계산서 확인,
 더이상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일자에 함께 발행해 드립니다.



먼저 이용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양란 90,000원



관엽화분 95,000원

어떤 상품도 가능합니다!
*1개 상품에만 사용 가능



근조화환 70,000원



동양란 80,000원



서양란 80,000원

이용해 보지 않고 업체를 변경하거나, 도입하기 쉽지 않으시죠?
귀사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업체 이전 시 1회 체험권 지급을 먼저 제공해드립니다.

Contact us

올해의 경조사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Tel
1668-1840

Email
mayflower@outlook.kr

Website
www.years-event.com

Managing Director
총괄이사 김도훈